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

작성일 : 2010. 11. 26. (금)

작성자 : 정형호 (서울 강남제일교회)

[금요성령집회 후 철야기도를 하며, 오늘은 그 어느 때 보다 주님과 선생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밤이 다가도 이 새벽이 다가도 좋으니 오직 주님과 선생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선생님이 더 크게 느껴지며 선생님과 연결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주신 선생님 영의 말씀입니다.]

* 선생님 말씀 *

심정과 마음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야.
아무리 애타는 말을 전해줘도,
전하는 이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알지 못하면
전하는 자는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게 된다.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더 기적이다.
내 심정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보고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된다.

이 말씀 꼭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은 목숨과 관련이 있고, 생명과 관련이 있으며
천국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을 절대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세상살이 한 때이다. 영원하지 않다.
근본 된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다.
이 섭리사가 천국의 밭줄이며, 천국의 뚝단배와 같다.

이 섭리역사 나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국 근본은 나를 통해 주님 하신 것이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믿고 역사를 이루셨다.

세상 수많은 목사들 세상 수많은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역사를 펴시려했던 주님의 마음...
난 그 마음을 아주 잘 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목적이 있는 사랑, 목적이 있는 것들은
진정한 사랑과 마음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무언가를 바라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 목적을 이루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 것이지.
진정 사랑하려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다.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신다.

나는 여태껏 주님을 모셔오며
나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직 주님께 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겠노라 맹세하며,
지금까지 주님 시키시는 대로 했다.

주님께 말씀을 배우며 혼나도,
주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오해를 했을 때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었다.

보잘것 없는 산골짜기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 했지만,
주님은 나의 이야기 벗이 되어 주셨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나면 난 주님을 찾았다.
마치 부모에게 이르는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 드렸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은 전부였다.
오직 주님과 대화.
오직 주님은 내 전부가 되어
주님 없이 살지 못 하는 인생이 되었다.
나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다.
주님과 사랑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섭리의 나의 제자들을 보면 나를 이용하려 하고,
주님을 이용하려하는 자들이 있다.
누군지 영계에서 보면 다 안다.
지금도 안다.
일부는 결국 주님께서 참지 못하셔서 쫓아 내셨지만
아직까지 일부는 남아있다.
회개할 시간을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쫓긴 바 된다.

이는 주님을 이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사들과 같은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심판이다.
심판이라 함은 지옥으로 떨어짐을 말한다.

그런데 있잖아,
나는 이 생명들도 절대 지옥 보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내 마음이야.
또한 주님의 마음이다.

섭리사 나의 제자들아...
나 선생, 오해 하지 말아줘요.

(엄청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선생 오해 하지 말아줘요.
너희가 나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겠느냐.
난 너희 믿는다. 너희를 향한 믿음 지금까지 변함없다.
그래서 알면서도 속아준다.
내 속을 보면 새까맣게 타있다.
속아주고 또 기회주고 속아주고 또 기회주며
나는 속으로 다 삭인다.
그리고 그 죄의 짐 내가 진다.

왜? 너희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 한참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울지마라. 내 말 이어 나가야지.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픉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심정을 너에게 와서 전한다.
이말 꼭 전해줘야 할 말이니,
다시 집중하여 울지 말고 같이 적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나는 항상 잘 있다. 너희 때문에라도 잘 있다.
나는 너희 욕 먹이기 싫다.
나는 너희의 자랑스런 선생이 되고 싶다.
그래서 더 떳떳하게 너희가 증거 할 수 있도록
더 몸부림쳐서 더 깊은 말씀 주님께 받아 내 놓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역사 이루어 드릴 것이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주님사랑. 주님증거.
주님과 일체된 삶 속에 나의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다 나도 목숨이 다하면
천국에서 너희와 꼭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나도 너희들 너무 보고 싶어.
이 추운 겨울 옆구리가 시리다며 세상으로 가는 자
있을까?
내 노심초사 하며,
나도 이 추위 너희를 끌어 안고 추위를 이기고 있
다.
페트병에 따듯한 물을 담아 추위를 녹인다 하지만
실상 난 너희의 사랑이 너무나 좋기에
너희가 보내는 기쁨의 편지와 사랑의 편지를 끌어
안을 때
너무 따듯하다.

마음과 마음이 느껴지니
너희의 사랑이 내게와 이곳을 밝게 비쳐준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건강해라. 아프지 마요.
그리고 절대 주님 중심하며
꼭 재림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야 해요.
매일 매일 주님 사랑하며,

그 사랑의 기준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매일 긴장함으로 주님을 찾아요.
너희도 그래야 해.
알겠지.

진정 사랑한다.
이 깊은 새벽 너희를 위해 기도하다
너희 생각이 너무 나서 내 한마디 전한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어떤 누룩과 미혹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의 사랑의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탄들의 공격도 거세지는 것이 법칙이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사탄들, 적의 공격에
항상 준비해야 당하지 않는다.

범사에 긴장하고,
말씀의 무기, 성령의 무기, 사랑의 무기를 항상 장
전하여
사탄의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길 바란다.

나는 나의 제자들이 잘할 줄 믿어요.

깊은 새벽 우리 늘 함께 하며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섭리역사 멋있게 이뤄드리자.
사랑한다.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 선생이 전한다.
사랑해요.
선생.

(“선생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솔직히 육신으로선 힘들 때도 있다.
그런데 내겐 보람이요. 행복이다.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품에 항상 거하시
니
모든 것이 기쁨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으니 나는 든든하다.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자가 있겠느냐.
그 누구도 없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난 모든 것을 얻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

자식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면 기쁜 것처럼,
나는 주님께 사랑의 화답을 하고,
너희는 주님과 나에게 사랑의 화답을 해주니
이 모든 것이 보람이다.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 하나 부러울 것이 없다.
나의 재산은 주님이요. 너희들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큰 재산이다.

나에게 이런 선물과 축복을 안겨 주신
주님께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 역사 정말 중요하다.
나를 극적으로 연단시키시고,
지금도 내가 참지 못해 더 극적으로 조건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마지막 재림의 시기에 놓인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역사이기에 그렇다.

그러하니 절대 단 한 생명도 이 섭리사를 나가면
안 된다.

이는 내 말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다.
나를 통해 계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요.

그것이 사는 법이다.
내가 보내는 말씀 나도 부지런히 행하며 지킨다.
나부터 온전히 더 주님을 맞이하며 사랑해드려야
하니까...
지도자들도 꼭 그리해야 된다.
주님 마음 주님 심정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전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해.
주님의 마음, 심정을 알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너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위로해드려야 해
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줄 수 있는 것도,
나를 간절하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며
내게 와서 나를 응원해주는 자가 있었기로
내가 말씀을 해줄 수 있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이다.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진정한 기도를 하라.

오늘 마치 섭리사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구나.
그래 좋다. 또 내가 글로 쓰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영으로 통하여 말씀을 줄 수 있으니
주님께 오직 감사할 뿐이다.

고맙다. 사랑한다.
오직 주님께 사랑을 드리자.

오늘은 이만 여기서 글을 마쳐야 되겠다.
사랑한다.

모두 모두 잘 지내. 선생도 잘 지낼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
우리 꼭 참지 못해 사랑함으로 꼭 만나자.
꼭 만나자. 사랑해. 안녕.

너와 나 이렇게 만났으니 기쁨이다.
내게 잘 보내라. 내가 확인 해줄게.
고마워. 네가 위로 해준 진심의 마음이 나에게 힘이 된다.
이제 그 마음 담아 생명들에게도
섭리사 신부들에게도 잘 전해주자.

심정과 마음을 잘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마워. 사랑해.

또 만나자. 안녕.

(이어 모든 마음을 모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진정 받는 것에만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선생님의 마음과 심
정을 알아드리는 신앙을 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그래. 선생의 심정을 알겠느냐.
나 예수의 심정과 참 같지 않더냐.
나 예수가 나의 제자들을 품고 대하듯,
너희 선생도 너희를 대하는 것이 참으로 똑같구나.

제자를 향한 그 사랑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내 두 눈엔 촉촉한 눈물이 맺힌다.
그토록 뜨겁고 애절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본 적이 없었도다.

일반 교회 목사들도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 하지만,
너희 선생의 진심어린 기도엔 미치지 못 하는구
나.

선생의 사랑은 내 사랑이다.
이 마음을 받고, 그 사랑을 받는 너희들은
참으로 행운아라 하지 않을 수 없구나.
사랑이 점점 메말라지는 세상가운데
이런 진실 되고 애절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으리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리요.
옳거니 맞도다. 단 한곳 이 섭리사 뿐이로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
그러하니 절대 등을 돌리면 안 된다.
등 돌리면, 어찌 되는 줄 아느냐.
지옥사자가 와서 너희 바로 잡아간다.

여지껏 섭리사를 잘 따라오다가도 나간 자들을 보
면서
선생도 나도 그리 안타까워하며
끝까지 잡으려 하며 몸부림쳤던 것은
그 광경을 실제로 보기 때문이며 잘 알기 때문이다.
섭리사의 문을 통과하면 사랑과 평화 뿐이지만,
섭리사의 문을 나가게 되면
바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기에 지옥의 고통뿐이다.

이는 섭리사는 천국의 문 안이요,
섭리사를 떠나는 그 문 밖은 천국의 문 밖이기에
지옥의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하니 절대 이 섭리사를 떠나면 안 된다.
너희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가면 안 돼.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가도 안 되고,
유혹에 못 이겨 나가면 안 되고,
사기꾼들의 꾀임과 수법에 넘어가서도 안 돼.
절대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믿음 안에 사랑도 절대 지켜 꼭 나를 맞아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해야 한다.
나는 너희와 자신 있게 약속 할 수 있다,
내가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문제는 너희다.
너희가 나와 약속대로 꼭 내 말대로 지켜
준비하여 가겠다고 약속하고 지키면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섭리사 신부들아. 꼭 약속이다.

그리고 선생 마음 잘 알아줘야 해.
선생의 마음을 아는 자가 나의 마음도 잘 알게 된다.
이를 꼭 알고, 선생 많이 사랑해줘.
그리고 힘을 주고 위로해줘.
이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고 나를 위로하는 것과 같다.
알겠지.

선생 없으면 나도 안 된다.
선생은 이 지구촌의 나의 열쇠와 같은 자다.
열쇠가 없으면 집도 들어갈 수 없고, 차도 탈 수 없
듯이
선생 없이는 이 역사의 복음도 전하지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보화를 잘 대해줘야 해.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 해 선생을 오해해도,
너희 만큼은 잘 아니 잘 대해줘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돌이키게 된다.

너희가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 중요함을 깨닫고,
선생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과 같으니
절대 믿고, 하나 되어 이 역사 더 창대케 펼쳐나가
자.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새 시대 섭리역사
더 찬란히 빛나라.
사랑한다.
선생과 한 몸인 사랑의 주 예수로다.